월요광장

스마트 팜과 땅심

정유진
코리아컨설트 대표

올해 들어 K-스마트 팜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한다. K-팝 열풍에 이은 K-뷰티, K-푸드 등의 한류 바람이 전 세계에 불면서 사막 등지에서는 K-스마트 팜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 통신 기술 등을 연결한 이 농법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진보된 농업으로 칭송받고 있다.

국내에서 10여 년 전 등장한 스마트 팜은 잎 위주의 채소에서 토마토·파프리카·딸기 등을 넘어 사과·복숭아 같은 노지 작물 재배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었다. 이젠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가 결합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농업의 성공 사례로도 번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스마트 팜은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이제 가정용 식물 재배기는 생활 가전 제품 판매망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다. 작은 화분 사이즈에서부터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본 듯한, 힙하고 멋있는 장식품 같은 가전 기기는 얼리 어답터라면 이미 하나쯤 장만했을지도 모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스마트 팜 농업이 최고의 해법처럼 떠오르는 이때 농업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든다. 마치 모든 농업의 문제를 스마트 팜이 해결해 줄 것처럼 과대 선전 내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 사회에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답이 될 수는 없는지 말이다.

기후 변화와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 농부가 사라지고 먹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있는 요즘 스마트 팜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농업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마트 팜과 가정의 실내 식물 재배기가 국가와 개인의 식량 생산에 혁명을 일으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공동체 및 생태를 위한 최고의 답안인지는 잘 모르겠다.

가령 기술과 시설 투자로 인한 고비용으로 농업에도 기업화를 가속하고, 해외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줄줄이 폐업하는 사례를 접한다거나, 어마어마한 에너지 사용량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못하다는 점, 그리고 농업 선진국에서 아시아의 본래 생태적인 농법에 주목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 앞선 의문이 증폭된다. 땅심으로 키워 내고 자란 식물을 보고 먹어 온 경험 때문일까.

스마트 팜 기사를 읽으며 엉뚱하게도 오래 전에 살던 동네가 떠올랐다. 광주천을 따라 남광주 시장을 지나고 학동 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만나는 동네, 방림동이다. 아담하고 정겨운 근대 모던 한옥과 양옥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동네에는 전에 특별한 생태 정원들이 존재했다. 길가 작은 틈새, 낡은 화분, 고무 대야 등 어디서고 노는 땅 하나 없이 빼곡히 심어진 농작물로 이루어진 정원이다. 상추는 물론 고추, 오이, 호박 그리고 대추나무까지 어느 집 정원이 더 창의적인지 겨루기라도 하는 것처럼 총천연색을 자랑했다.

곳곳에서 푸른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유독 내 눈에만 띈 것은 아니다.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나 해외에서 온 유수의 큐레이터들도 어르신들의 칼칼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동네 정원을 보면 농경 민족으로서 인류의 원형인 땅심을 볼 수 있는 대단한 설치 작품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흙을 만지는 일은 일상이었다. 흙을 만지는 행위는 특별히 정서를 위해서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런 삶의 활동이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험한 흙에서 자연을 배우고 자연에 닿는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바뀌었다. 불과 이삼십여 년 만에 늘 어디서나 볼 수 있던 자연스런 생태 경관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아파트 숲 사이에서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조경된 공원과보다 정밀하게 조작되고 스마트해진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자연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스마트 팜에 미래가 없다고 여기진 않는다. 지나고 보면 자동차의 발명 후 초기 등장과 발전의 과정처럼 일상에 파고드는 혁신적인 스마트 팜의 발전 속도에 다소 방어적이고 신파적인 반응인지도 모른다. 다만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스마트 팜 더 나아가 우리의 농업 환경과 생태도 함께 조명되고 다뤄지기를 바란다.

수필의 향기

옥수수 익어갈 때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더위가 예사롭지 않다. 콩밭과 옥수수밭이 금이 쩍쩍 갔다. 시골집에 가려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는데 아내가 한마디 한다.

"자기 엄마 챙기듯, 우리도 좀 챙겨봐!"

김치와 양파장아찌를 담다가 도둑질하다 들킨 양, 멈칫 서고 만다. '자기'를 빼면 좋으련만 그 자기라는 가시가 가슴 깊게 파고든다. 호흡을 가다듬는다. 길게 숨을 내쉬며 몇 가지 밑반찬을 더 담는다. 젊은이의 입맛도 빼앗아 가는 7월, 노인은 입맛도 쩍쩍 갈라진 논밭이나 다름없을 거다.

"옥수수 나왔을지 모르겠네."

아내가 천연덕스럽게 화제를 바꾼다. 슬며시 아내를 본다. 낯빛이 어둡다. 작년과 재작년에 장인과 장모님이 1년 사이에 돌아가셨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장모님에게 장인 어르신 돌아가신 사실도 알려주지 못했다. 장모님 역시 자식들 병간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셨다. 아내 상처가 컸다. 노인들을 보면 애처롭게 여기다가도 가끔 역정을 낸다. 살아계신 노인들이 부럽기도 하고, 친부모님 생각에 속상하기도 했을 거다.

옥수수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다. 하지만 지금은 대만 무성할 뿐 이제 겨우 알이 여물 즈음이다.

평소 어머니 말씀에 장단을 잘 맞춰주던 아내다.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꼭 어머니와 딸 같았다. 그렇게 둘이 친근하게 지냈는데, 아내가 그러니 마음이 착잡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좀 그만해!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노인 걱정 좀 했더니 되돌아온 말이다. 아내의 고성을 뒤로 하고 고향 집으로 향한다. 시골은 초입부터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무등산에는 소낙비가 간혹 왔는데, 화순은 사막이다.

그늘이 아니고선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다. 노인이 걱정되어 서둘러 밭으로 간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무더위에 어머니는 고랑에 계신다. 옥수수 고랑과 물고랑, 그곳에서 낑낑거리며 바지런히 옥수수에 물을 주고 계신다.

난 서둘러 어머니의 두레박을 빼앗다시피 잡는다.

"시방 안 하면 열매가 안 열리지, 요 때 물을 줘야 알이 잘 여물어"

어쩌면 알곡 탓이지만 진심은 옥수수를 보고 함박웃음으로 달려올 둘째 며느리 생각으로 물을 주고 계셨을 것이다.

가뭄이 길어지고 갈증도 날로 심해진다. 갈증 중 최고는 목마름보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은 노년이면 누구나 겪는 슬픔이고 고통이다.

옥수수의 모든 이파리는 는개나 이슬도 놓치지 않게 모아서 줄기를 통해 뿌리로 수분을 내려주는 구조다. 햇볕이라면 굳이 잎사귀를 양팔처럼 치켜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옥수수는 순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수수 잎들이 마치 비를 내려달라고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하다.

흔히 소를 희생의 동물이라고 한다. 살아서는 노동력, 죽어서는 가죽과 살 그리고 뼈까지 다 주고 간다고들 한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알맹이는 물론이려니와 수염은 차나 약으로, 줄기는 사탕수수로, 잎은 사료로 쓰인다. 뿌리마저 벌레들이 가장 좋아한다.

한 알 한 알이 가지런히 박힌 옥수수알, 그건 어머니의 하루하루 정돈된 삶이 알로 여문 것 같다. 우리의 삶도 어머니처럼 혹은 옥수수처럼 한 알 한 알 잘 여물기를 바란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이 전해질 때가 많다. 먹거리는 더욱 그렇다. 옥수수가 익고 있다. 밭에서 익어가던 어머니의 옥수수가 우리 집 냄비에서 또 뜨겁게 익고 있다.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찰진 옥수수처럼 착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옥수수의 맛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내에게 달콤하고 새콤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날것 인생도 저리 푹푹 삶아져서 야들야들해졌으면 좋겠다.

꿈꾸는 2040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쇼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은 미풍이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바람은 거세어질 전망이다. 매번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런 바람이 부니 예측 또한 가능해진다. 용두사미(龍頭蛇尾), 눈 가리고 아웅 등 시작은 거창하지만 결론이 흐지부지되거나, 잠깐 동안 국민을 현혹시키는 쇼(show)와 이벤트(event)로 마무리된다. 속된 말로 국회 임기 4년 동안 3년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가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화두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에게도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위원회가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당을 압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의 문제로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이 넘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만으로 개헌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더구나 헌법의 가치를 국민적 절차인 공론화 과정이나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 없이 변화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정치권이 이 문제를 선거를 앞둔 쇼나 이벤트가 아니라면 구호성의 선언이 아니라 당장 개헌 논의부터 착수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은 늘 있어왔기에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30년이 지난 헌법의 조항을 손봐야 하고 시대에 맞는 법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논의에 착수한 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헌은 뒷짐을 지고 불필요한 개헌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구호로만 남발하고 있다.

둘째,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분명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문제 많은 의원들 때문에 좋은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4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상당수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칼날에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라는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사법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호위무사의 역할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띄어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에 편승해 내놓은 혁신과 개혁이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개혁의 일환인 선거 제도 개편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규칙 즉 제도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다. 선거 시기마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선거 제도 개편이 화두이지만 늘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규칙을 정하는 일에 선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아닌 선수인 자신들이 경기 규칙을 정하니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본다면 외부의 인사들에 의해 선거 규칙이 정해지고 정해진 규칙을 법률로 제정하면 된다.

선거 때마다 들려오는 혁신과 개혁 구호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쇼나 이벤트로, 눈속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社說

복합 위기 직면한 지역 경제…비상한 대응을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으로 도산·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 건수는 2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의 두 배를 뛰어넘는 것이다. 매달 4.4개꼴인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파산 신청 기업은 50개를 웃돌며 최근 10년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광케이블 전문업체 무송지오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지역 경제계에 파장이 일었다. 위니아전자 광주사업장은 생산직 사원의 절반인 130여 명에 대해 구조 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한때 잘나가던 지역 건설사들도 자금난으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폐업을 신고한 광주·전남 종합 건설사는 2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고, 전문 건설사 폐업도 지난해 113개에서 140개로 증가했다. 광주·전남에서 건설업은 사업체 수 3만 9000개, 종사자는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 줄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 돌파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를 응원하는 국민 기부 행렬

일본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 중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대위 변제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일본의 사과와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원고 네 명을 응원하는 모금 운동에 국민들의 성원이 답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소위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과 맞물려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전국 6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두 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두 명 등 네 명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10억 원을 목표로 시작된 시민 모금은 목표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모금이 중단되며 모금액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민 모금액은 8일 오후 7시 현재 3265건, 2억 4500만 원에 달한다. 후원에는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성금을 보낸 이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다.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받은 축의금을 흔쾌히 내놓은 예비 부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자 5·18민주화운동 당사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만큼 기부한 시민 등 다채롭다. 초·중·고교생 세 명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시민 모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기부 의사를 물었더니 세 자녀가 모두 용돈을 선뜻 기부했다며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발적인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정부는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환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타이탄

지난 1997년 제작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은 개봉 당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다. 아카데미 최다 11개 부문 수상을 비롯해, 전미 박스오피스 15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말해 주듯 영화는 세계의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1912년 실제 있었던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모티브로 극적인 상황과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역동적인 서사로 그렸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잭(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은 타이타닉 1등실에 승선한 로즈(케이트 윈슬렛)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즈에게는 재력의 약혼자가 있다. 금지된 사랑이 더 불타오르듯 잭과 로즈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만다. 운명의 사랑이라 믿은 두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점점 다가온다. 거대한 빙산이 배를 향해 다가오고 마침내 빙산과 충돌한 배는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

1912년 발생한 침몰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는 전 세계에 비극을 환기했다. 그런데 영화가 그렸던 서사와는 다르지만 얼마 전에도 당시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대서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잠수정 타이탄에 승선했던 승객들이 모두 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저 4000m까지 내려갈 수 있게 설계된 잠수정이 침몰한 것은 외부 압력에 의해 구조가 붕괴되는, 이른바 내파 때문으로 추정한다.

타이타닉호나 타이탄이나 안타까운 인명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한가지 씁쓸한 것은 이번 잠수정 사고는 '익스트림 관광'(극한 관광) 차원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막대한 재력이 있는 갑부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목숨을 건 체험을 감행하는데, 이번 잠수정 여행도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약 3억 25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관광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극한 관광을 하는 것은 자유다. 미지의 영역과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 문제는 다른 이의 비극과 고통이 드리워진 현장을 체험이나 관광 명목으로 가는 것이다. 어떤 명분이든 타이타닉호 침몰 관광은 일반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